

2022 개정 한문 교과서에 구현된 경학 전통의 생활화 양상 연구*

김성중**

-
1. 서론
 2. 자기 삶과의 연계
 3.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4. 사회로의 확장
 5. 결론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학 전통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학생들의 생활 속에 인식, 활용하게끔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특히 '생활화'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는데, '경학 전통의 생활화'는 경학 전통의 수용과 생산을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적용,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한문 교과서에 구현된 경학 전통의 생활화 양상은 첫째 자기 삶과의 연계, 둘째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셋째 사회로의 확장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자기 삶과의 연계의 측면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성찰을 학습자 본인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실생활로 전이하는 활동,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과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한국경학학회 공동 주최 국제학술대회 (2025년 12월 12일(금),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 E-mail: zhung1227@hanmail.net

정 등을 확인하였다.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에서는 경학 전통의 가치와 덕목을 자기화하면서 타자와의 관계, 소통에 투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활동을 살펴보았다. 사회로의 확장에서는 경학 전통이 현대 사회의 의제와 연계되고, 현대 사회를 분석·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2022 개정 한문 교과서에는 경전 구절에 대한 지식적 이해, 수동자로서의 독해를 넘어 학습자 실생활에 어떠한 의미 있는 관련, 확장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활동을 개발, 적용하는 방향이 구현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학 전통의 생활화는 한문 기록 속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한문과의 필요성 및 역할과 관계 있는 것이다.

주제어: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 경학, 경학 전통, 생활화

1. 서론

본 논문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학 전통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학생들의 생활 속에 인식, 활용하게끔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전 교육 관련한 연구 성과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 검토 또한 진행되었다.¹⁾ 특히 김수경(2024)은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 즉 2007, 2009,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근거해 편찬된 한문과 교과서에서의 유가경전 및 제자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근거해 편찬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²⁾라는 새로운 범위에

1) 관련 연구 논저 목록은 함영대(2011): 김수경(2024) 참조.

2) 총 28종으로, 중학교 『한문』 교과서 11종,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9종, 고등학교

서 ‘생활화’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먼저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경학’, ‘경학 전통’, ‘생활화’가 그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경학’은 ‘유가 경전학’을 말하는데, 유가 경전학의 대상인 유가 경전의 범위와 성격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³⁾ 본고에서는 四書を 포함한 十三經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⁴⁾

‘경학 전통’ 관련해서는 비교적 긴 다음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新明心寶鑑』 편정의 기본 방향은 文明史的인, 다소는 거시적인 眺望에서 취하고 있다. 이 시대가 문명사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이미 세계가 공인하는 바다. 이 위기의 요인 내지 현상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공통되는 바인데, 물질 가치의 압도적 우위, 과학 기술의 경쟁적 우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끝없는 추동, 이 세 가지의 결합·상승이 몰고 오는 자연의 무자비한 착취·파괴와 생존 환경의 심각한 오염, 그리고 도덕 가치의 몰락과 인간성의 황폐화가 그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 시대의 이러한 문명의 심각한 위기에 對應하는 시각에 편정의 기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일상적인 윤리규범의 복고적 재생의 企圖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 책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內的으로는 당연히 이 기본 방향에 포섭되어 있다. 적어도 편정의 의도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크게 두 줄기로 구체화시키려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人間化·道德化와 사람과 自然 사이의 관계의 一體化의 回復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이 시대 문명의 바탕이 되어 있는 人間觀과 自然觀, 곧 世界觀 총체의 轉回의 企圖다. 세계관의 전회 없이는 문

『언어생활과 한자』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 1종이다. 구체적인 교과서 목록은 참고 문헌 참고.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중(2011), 160~163면; 김수경(2024), 189~194면 참조.

4) 2022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의 유가 경전 제시 양상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본고의 연구 범위와 일정한 거리가 있으므로 논의를 줄인다.

명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그 사상적 입장에
 구애 없이, 그리고 무작위로 임했으나 결과에 있어서 儒家系가 압도적
 이 된 것은 이 책이 의도하는 바 목적과 동아시아의 사상사적 상황과의
 사이에 빚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다.⁵⁾

한문교육의 측면에서 경학 전통 관련 교수·학습 내용의 지향을 정합
 에 있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위 언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편정 방향에 의해 마련된 ‘차례’는 경학 전통
 관련 교수·학습 내용 선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차례			
	머리말	1	
	編定의 方向	3	
	일러두기	6	
제 1 장 道德의 主體의 정립			제 4 장 共同體의인 삶
1. 爲己之學	13	1. 共同體의 인식	155
2. 道德主體로서의 心性	23	2. 忠恕	160
3. 天에의 畏敬	29	3. 나눔의 삶	166
4. 克己	35	4. 인생의 叡智	173
5. 自反	41		
6. 正己	46	제 5 장 公人의 道	
7. 養德과 行善	55	1. 公職人의 基本 人格	183
제 2 장 家族으로서의 나		2. 廉潔	187
1. 가정의 두 志向	67	3. 公正	195
2. 孝(1)	72	4. 職分에의 誠實	200
3. 孝(2)	83	5. 愛民	206
4. 友愛	90		
5. 부부의 情과 義	98	제 6 장 나라를 위하여	
6. 가정에서의 教育	110	1. 愛國	215
제 3 장 待人의 도리		2. 國難에 臨하여	226
1. 禮의 정신	119	3. 節義	244
2. 交友의 道	124		
3. 스승에 대한 姿勢	134	제 7 장 自然에 대한 윤리	
4. 어른에 대한 禮節	141	1. 物我一本	255
5. 交際의 正道	144	2. 自然生機에의 愛情	258
		3. 愛物	263
		4. 자연과의 心性的 交感	270
		5. 자연의 類推의 受容	276
		6. 自然物의 節用	280
		附錄: 人物 出典 紹介	

〈그림 1〉『新明心寶鑑』 차례

5) 고려대학교 편정(1995), ‘編定의 方向’.

‘차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의 유가 경전 교육 관련 연구논저들에서 다루어졌던 가치, 덕목, 주제, 내용 등⁶⁾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분류, 조직 또한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 ‘차례’를 인용한 이유는 이를 경학 전통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⁷⁾ 중등교육에서 경학 전통을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참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 같은 교재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교사의 불완전성과 역할의 차별성이 그 근거로 제시되는데⁸⁾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차례’의 항목은 역시 참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화’라는 용어는 국어교과의 선행 연구에 힘입은 바 큰데, 한국문학교육학회가 2001년부터 ‘문학생활화’를 기획 주제로 하는 등 문학교육의 화두로 등장했으며⁹⁾ 이 논의의 촉발은 김대행¹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문학 생활화’라는 학습 요소는 중요하게 제시된다.¹¹⁾ 김대행은 ‘생활화’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파악하면서,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視角)’을 정적(靜的)에서 동적(動的)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정적 시각에서의 문학은 거기 그렇게 있는 실체(實體)라면 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학은 생생하게 움직이는 동체(動體)이자 끝없이 완성되고자 생동하는 활동으로 보이게 된다.¹²⁾ 형식을 이해하고 내용, 주제를 파악하는 지식의 수용적 측면이 정적인 시각의 소산이라면, 동적

6) 이에 대해서는 용어는 다소 다르지만 기존 논문들에서 일부 밝힌 바 있으며, 함영대(2018)에서 ‘가치 설정’이란 접근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7) 해당 책의 ‘자연생기에의 애정’ 같은 항목에는 유가경전 글감이 없다.

8) 배두본(1999/2014), 8~9면 참조.

9)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명기(2020), 22~25면 참조.

10) 김대행(2001) 참조.

11)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생활화’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김대행(2001), 10~11면 참조.

인 시각에서의 문학 작품은 “활동의 좋은 본보기이자 또 그것을 수용하는 자에 의해서 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료”¹³⁾의 의미를 갖게 된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해설에서는 문학의 생활화를 “문학의 생활화는 예술로서의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일을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¹⁴⁾라고 정의하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고 넓게 하고,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자신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¹⁵⁾라고 설명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김대행의 논의를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활화’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의 교수·학습의 방향에 모두 “학습 내용이 실생활에 쉽게 전이되어 학습자가 지식을 실제로 적용·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¹⁶⁾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학습으로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¹⁷⁾하기 위함임을 명기하였다. 이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 “학습자, 가정,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교 급 간 및 다른 교과와의 융합·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¹⁸⁾와 ‘명언·명

13) 같은 논문, 11면.

14)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15)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 상, 모든 교과에 ‘해설’이 별도 발행되어서 이처럼 자세한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교육과정 즉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해설’이 별도로 발행되지 않는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학의 생활화’ 역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하다.

16) 교육부(2022),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10, 27, 40면.

17) 같은 곳 참조.

구 암송하기' 교수·학습 방법에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¹⁹⁾라는 서술과 비교한다면, 보다 실생활로의 적극적 활용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수·학습 방향의 변화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에도 나타나는데 '편찬의 기본 방향'에서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표현 상의 차이는 있지만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문과의 성격으로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의 이해', '자아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 함양'²¹⁾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경학 전통에서 강조하는 덕목, 가치 등은 바로 한문과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이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고는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한문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경학 전통의 생활화, 즉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경학 전통을 학생들의 생활 속에 인식, 활용하게끔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하는바, 첫째 자신의 삶과의 연계, 둘째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셋째 사회로의 확장이라는 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²³⁾

18) 교육부(2015), 19, 40, 60면.

19) 교육부(2015), 16, 37, 5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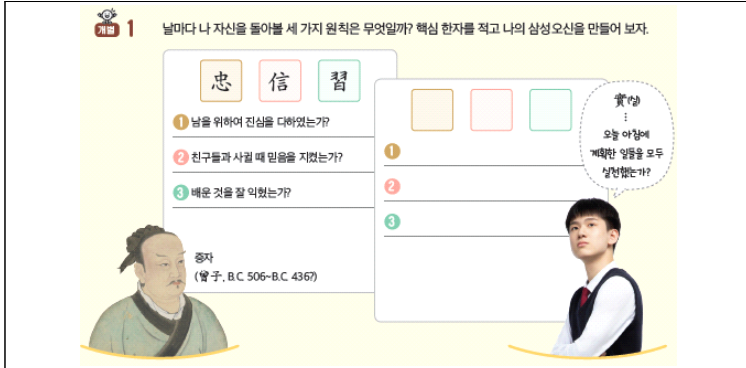
20) 충청북도교육청(2023), 참조,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충청북도교육청(2015), 1, 7면]와 비교하면 2022 편찬 방향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1) 이는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으로 기술되어 있다.

22) 『大學』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팔조목은 바로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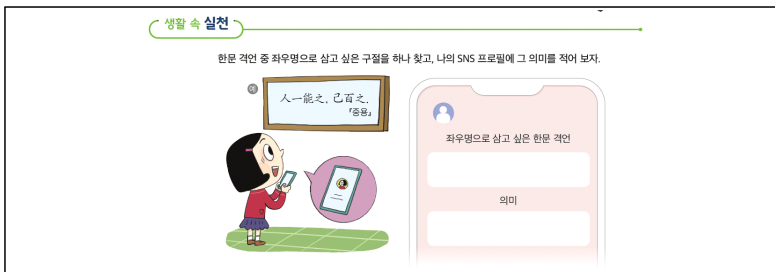
23) 세 가지 접근 방법은 필자가 2022 개정 한문과 교과서 전체를 분석한, 귀납적 결과이지만, 반드시 이 세 측면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자기 삶과의 연계



〈그림 2〉 ‘중-미래엔’,²⁴⁾ 129면, ‘삼성오신으로 독서하기’ 일부

『논어』의 ‘삼성오신(三省吾身)’ 속에 담긴 선인들의 삶의 성찰을 학습자 본인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나만의 ‘삼성오신’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선인의 성찰 형식과 내용을 본받아 나의 실생활에 전이하는 방법이기에 중학교 수준에서도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고한-동아출판’, 64면

24) 송혁기 외(2025), 중학교 『한문』, 미래엔으로 이하 ‘중-미래엔’으로 약칭한다. 고등학교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문’, 융합 선택 과목으로 ‘언어생활과 한자’가 있다. 구분을 위해 전자는 ‘고한’, 후자는 ‘언한’으로 칭한다.



물건에 새긴 마음, 잠명(箴銘)

‘잠명’은 ‘경계할[箴] 만한 내용을 새긴[銘] 글’로, 선조들은 자신의 잠명을 물건에 새겨 품고 다니거나 일상에 가까이 두어 늘 잊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글을 새길 물건을 정할 때도 글귀의 의미와 물건의 쓰임이 통하는 것을 골라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글귀에 담긴 교훈을 되새기려 하였다. 이를 실천하며 의지를 굳건히 다진 옛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 보자.



인물

중국 은(殷)나라 탕왕(湯王)

구절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으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의미

매일 세숫대야에 얼굴을 씻듯
새 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겠다는 다짐

생활 속 실천

나의 잠명으로 삼을 한문 문장을 골라 책갈피로 만들어 보자.

④

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림 4〉 ‘고한-동아출판’, 70면

〈그림 3〉은 ‘SNS’라는 디지털 일상 공간으로 가져온 것이고, 〈그림 4〉의 ‘책갈피’는 물건에 새겨 일상에 두고 반복적으로 접한다는 잠명 고유의 물질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SNS’, ‘책갈피’ 모두 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대상이므로 좌우명, 잠명의 실천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삶에서 내가 본받거나 반성해야 할 점 세 가지를 뽑아 서술해 보자.
또, 이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글자의 한자를 선정해서 나의 하루를 살펴보자.

예

中: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평생 후회로 사는 형이를 보며, 욕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를 돌이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감정이 위로도 아래로도 솟구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운데 중'을 골랐다.

주: 세상 사람들은 범죄자의 가족도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한다. 나는 여기에서 그 사람 자체의 본모습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평평하다 평'을 골랐다.

溫: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표현을 냉정하게 하는 동이를 보며 내 진심을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따뜻하다 온'을 골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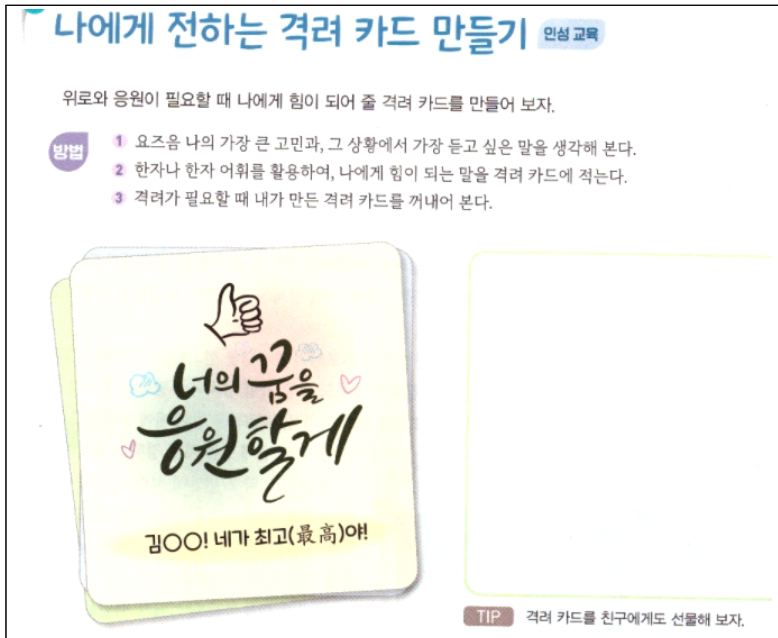
:

:

〈그림 5〉 ‘중-미래엔’, 182면, ‘삼성오신으로 독서하기’ 일부

〈그림 5〉는 인상 깊게 읽었던 책과 줄거리,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를 소개하는 첫 번째 활동 다음 이루어지는 두 번째 활동이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본받거나 자아 성찰하는 방법을 독서 활동으로 전환해서 적용하고 그 독서 경험을 다시 자신의 일상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환류한 것이다. 즉 독서-본받음/성찰-일상 자기 점검이라는 구도를 만든 것인데, 경학 전통이 학습자의 일상 독서 습관으로 전이되는 생활화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10 經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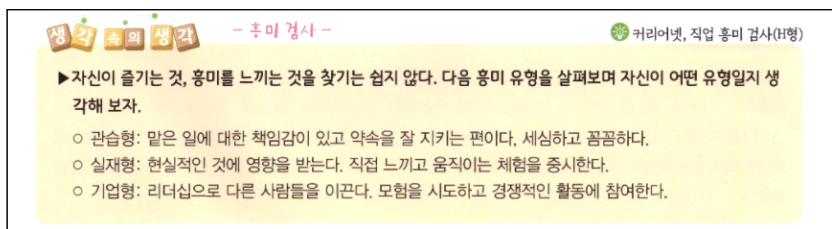
〈그림 6〉 ‘고한·비상교육’²⁵⁾, 77면, ‘三省吾身’ 관련 활동

曾子의 “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는 모두 ‘不’로 표현되는,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반성적 측면이 강하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태도를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격려와 응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6〉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존감, 자기 위안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학 전통이 성찰에서 일상의 치유로 확장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학생들의 고민 중 큰 부분은 진로에 대한 것이다. 『논어』의

25) 고등학교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문’, 융합 선택 과목으로 ‘언어생활과 한자’가 있다. 구분을 위해 전자는 ‘고한’, 후자는 ‘언한’으로 칭한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구절은 진로 선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종 인용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문장과 ‘커리어넷’을 연결해 심리 검사를 안내하기도 한다.



〈그림 7〉 ‘중-글샘’, 61면, ‘知之者不如好之者~’ 관련 활동

교수자는 위에 제시된 3가지 유형 외에도,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등을 추가로 언급하면서²⁶⁾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도움을 받게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경전 구절을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진로 설계라는 것으로 연결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인 것이다.

26) ‘중-비상교육’ 75면에는 6개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8〉 ‘고한-다락원’, 133면

공자의 삶을 단계적 자기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한 뒤 이를 학습자 본인의 현재 및 미래와 연결하는 교수 학습법은 경전 구절 그리고 어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22 개정 한문과 교과서에는 특히 자신의 삶과 연계된 활동이 많은데 아마도 경학 전통에서 ‘수신’ 즉 ‘도덕적 주체의 정립’²⁷⁾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의 활동에서 보았듯이 교과서 필자들은 학습자 자신의 삶의 다각적인 측면으로의 적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경학 전통의 실생활로의 전이를 다양하게 달성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모든 교과서에서 친구, 우정과 관련된 제재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중·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화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인의 ‘한 그루의 우정 나무를 위해’라는 시를 제시하고, “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²⁸⁾ 같은 활동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채택하는 교수학습 내용이자 방법이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는 성어의 재구성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면서 교우 관계에 대한 나만의 가치를 정립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7) 앞에 제시한 『新明心寶鑑』의 ‘차례’에 있는 용어이다.

28) 고한-다락원, 49면.

〈예시〉처럼 한자 1개를 바꿔서 친구 사이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예시) 朋友有信. ⇒ 朋友有 親 .		朋友有 .	
음	붕우유친	음	
풀이	친구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풀이	
이유	예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한 친구와 함께 어울려 놀면 즐겁고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	

〈그림 9〉 '중·장원', 61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과서 재구성 등이 교육계의 큰 흐름 중 하나이고 한문 교과에서는 원문을 가공하는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다.²⁹⁾ 위 그림은 그러한 방법을 경학 전통의 핵심인 오류 가운데 하나인 '붕우유신'에 적용한 예인데, 개념 내지 가치를 자기화하면서 그것을 타자와의 관계, 소통에 투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29) 이러한 활동의 의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며, 그러한 존재가 학습자 주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에 있다. 漢詩의 경우, 한 구 전체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활동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내 친구와 어울리는 한자는 무엇일까? 친구와 어울리는 한자를 하나 고르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자.

친구와 어울리는 한자 이유	나의 친구 에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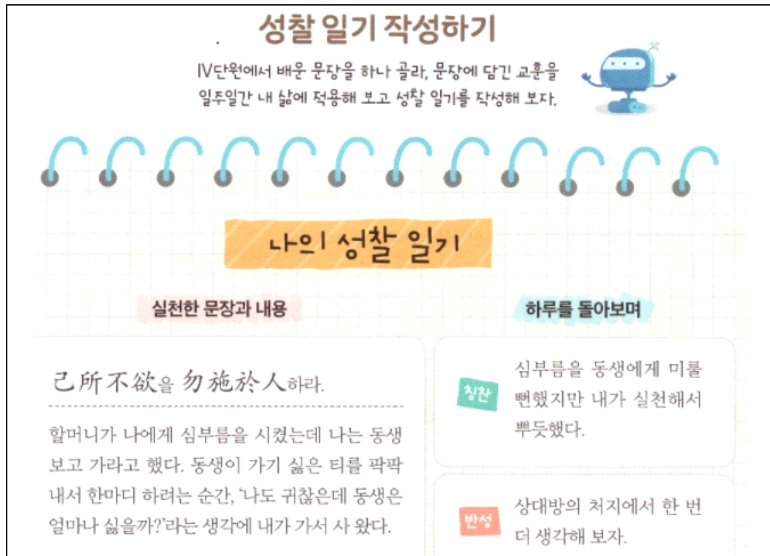
〈그림 10〉 ‘고한-비상교육’, 35면

〈그림 10〉은 본문의 글감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등과 연계된 활동이다. 위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타자와의 관계, 소통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친구에 대한 관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친구의 특징적 면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한자를 찾는 과정으로, 한문 교과 시간에 배운 한자 혹은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탐구가 진행된다. 앞선 ‘朋友有□’이 관계의 가치, 덕목을 정의하는 것이라면 이 활동은 친구의 고유한 특성을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 생활화이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표현하는 것은 실제 소통의 과정이자 실천이라 할 수 있다.

‘己所不欲, 勿施於人’은 중학교 한문 교과서 11종 중 8종에 실려 있는 글감이다. 해당 글감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실천 관련한 나의 다짐 쓰기³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³¹⁾ 등의 활동이

30) ‘중-천재’, 125면.

제시되었는데, 다음 두 활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중-와이비엠’, 103면

〈그림 11〉은 경전 문장을 실제 행동 규범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앞의 활동과는 약간 다른데, 일기 형식이어서 일회성, 단발성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활용되었다는 특징도 있다. 경전 구절이 지식의 측면을 넘어 반복 체화, 실행될 수 있다는 적용의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1) ‘중-미래엔’, 136면.

나의 생각을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학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적어 봅시다.

미루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그림 12〉 ‘중-비상교육’, 102면

〈그림 12〉의 활동은 학습자가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 그 환경에서 다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은 일과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의 구분은 타인에게 미루는 행위 등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사고하게 한다. 또한 친구와의 생각 비교는 타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통과 공감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강조한,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한다³²⁾는 한문 교과의 필요성과 역할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32) 교육부(2022), 5면.

4. 사회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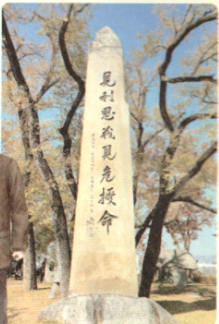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

활동

민족의 英雄 안중근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射殺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로운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라.”라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공소권을 포기한 채 뤼순 감옥에서 저술에 힘썼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9일, 순국하기 전 최후의 遺言을 남겼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 되거든 고국에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의로움이란 어떤 것인가요



▲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새긴 비석



개념 1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의로운 사람을 흔히 ‘의인’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 의로움을 몸소 실천한 분의 사례를 조사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자.

의인 탐색 기사 감사장 받다

○○ 택배 회사는 목록탐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한 심폐 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택배 기사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하락)

2020년 ○○월 ○○일 ○○일보

 기사를 찾아 읽어 보니 택배 기사님은 처음 겪은 상황이라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쓰러진 어르신을 보고 심폐 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한다. 의인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신문을 검색하면 우리 사회 많은 의인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

• 사례: _____

• 느낀 점: _____

〈그림 13〉 ‘중-미래엔’, 141면, ‘見利思義, 見危授命’의 활동

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강조하고³³⁾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적 현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³⁴⁾ 한 문 교과과 과거의 문헌에 대한 탐구를 넘어 현재 삶에서의 의미를 갖는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한 것이다.

〈그림 13〉은 『논어』 구절 “見利思義, 見危授命”의 실천 예를 안중근 의사의 삶과 유묵을 통해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인의 경학 전통의 생활화를 나타낸 것으로 그 가치는 소중하고 존경의 대상이지만 자칫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적 삶과 거리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교과서에서는 의로움의 실천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택배 기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실천 측면에 있어 경학 전통의 생활화가 학생들의 삶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며,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見利思義, 見危授命”을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말하다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여, 사회 지도 계층에게 사리사욕을 경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통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회 고위층의 공공 봉사 and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럽의 교양 있는 상류층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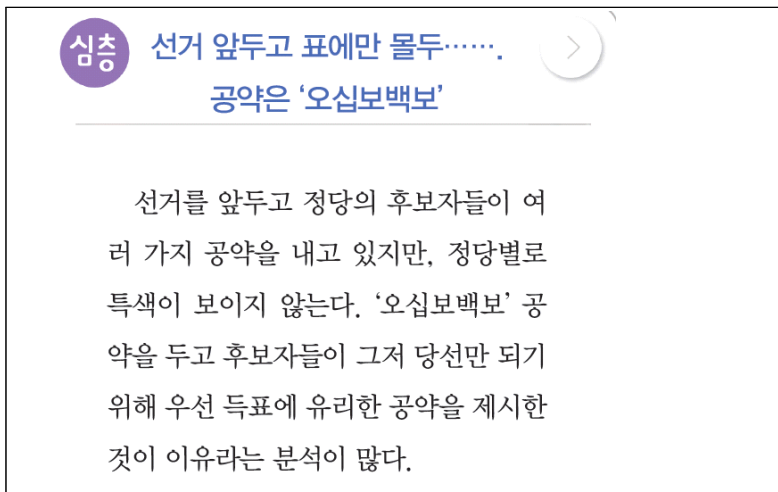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의 금융·항공·통신·가전 등의 14개 대기업군을 거느리며 스웨덴 주가 총액 40%를 장악하고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집안이지만 경영권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자질과 철저한 도덕적 감증을 거친 후 반드시 2명으로 선정된다. 후계자가 2명인 이유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전횡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 가문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세계 1,000대 부자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기업의 파트너로서 노조의 대표를 반드시 경영진에 포함하고, 수익의 85%를 법인세로 국가에 환원한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발렌베리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150년간의 전통으로 지속되고 있다.

※참조: “EBS 지식채널e” ‘후계자들’(2014년 1월 7일 방송)

〈그림 14〉 ‘고한-대학서림’, 115면,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글감 자료

33) 같은 책, 9면.
34) 같은 책, 10면.

공자 정치의 핵심이자 술선수법의 경구로 회자되는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구절을 통해 고위층 인사의 도덕적 의무를 설파하는, 경학 전통과 현대 사회의 의제와의 연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의 현재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할 듯하다. 경학 전통에 있어 공동체의 인식, 나눔의 삶을 체화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³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중-천재교과서’, 89면, ‘五十步百步’ 성어 자료

〈그림 15〉는 “배운 성어 중 하나를 골라 성어를 제목으로 활용한 가상의 신문 기사를 작성해 보자”는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 현대 사회를 분석,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석, 비판적 생활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문 기사 작성’은 그 분석, 비판이

35) 교육부(2022), 5면. 한문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중학교 ‘한문’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한문’ 등에도 제시되어 있다.

즉흥적, 감상적이 아닌 체계적 논리적 과정으로의 실천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似而非사이비를 싫어한 공자



‘사이비’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實際^{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맹자와 그의 제자인 만장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만장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공자는 향원(鄉愿: 마을의 신망을 얻기 위하여 선량함을 가장하는 위선적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에 맹자는 “공자께서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다.[孔子曰惡似而非者공자^원오사이비^지]”라고 답하였다. 결국 향원은 사이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 내용처럼 공자는 사이비를 아주 미워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 사람을 현혹하기 때문이었다. 外樣^{외양}만 비슷한 사이비에 속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야 한다는 경계를 담고 있다.

▲ 공자 초상

생각과 나눔

🔊 아래 예시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쓰인 ‘사이비’라는 어휘를 찾아서 한 줄 뉴스를 만들어 보자.

예시 사이비 의료 행위

국회는 관련 의사 단체들과 협의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사이비 의료 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림 16〉 ‘고한-박영사’, 26면

〈그림 16〉 역시 〈그림 15〉와 비슷한 측면이지만 경학 전통이 현대에도 유효한 개념이라는 것을 일상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활동으로, 추가적으로 ‘한 줄 뉴스’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내는 능동적 실천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학습자가 직접 창의적으로 현대 사회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로 확장될 수 있다.

맹자가 제시한 최저생계비 조건

‘망민(罔民)’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형벌에만 치중하는 군주의 잘못을 꼬집은 표현이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생계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백성들이 흉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은 현대적 사회 복지 제도의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맞닿는다.

우리 사회 복지 제도 구상하기

맹자가 주장한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과 연관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제도를 구상해 보자.

교육	
노동	
의료	
장애인	

〈그림 17〉 ‘고한-대학서림’, 120, 121면,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관련 자료 및 활동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삶의 양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포용적 태도와 公共善의 적극적 추구를 강조한다.³⁶⁾ ‘복지 제도 구상’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다소 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서의 ‘無恒産而無恒心’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36) 교육부(2022), 『한문과 교육과정』, 37, 38면.

5. 결 론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까지 한문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심에는 교사 중심, 이해 중심에서 학생 중심, 활용 중심으로의 지향이 존재한다. 즉 기존에 규격화된 주제와 감상은 개별화되고 창의적인 시각과 해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기저에는 학습자의 삶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넘어 생활화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목표가 내재해 있다고 판단된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인성 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전반을 구성하였다.”³⁷⁾는 언급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경학 전통에 있어서도 경전 구절에 대한 지식적 이해, 수동자로서의 독해를 넘어, 학습자 실생활에 어떠한 의미 있는 관련, 확장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활동을 개발, 적용하는 방향의 설정이 2022 한문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모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한문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경전 원문에 기반한 경학 전통의 생활화 방법과 내용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인 『언어생활과 한자』 7종에는 본문에서 보이는 방법과 내용이 거의 있지 않았음도 알 수 있었다.³⁸⁾ 그 이유는 아마도 ‘언어생활과 한자’ 과목

37) 교육부(2022), 『한문과 교육과정』, 3면.

38) ‘사단(四端)’, ‘극기복례(克己復禮)’ 등의 어휘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활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리 및 발표”(‘언한-천재교과서’, 113면), “맹자, 순자, 고자 등 세 사람의 주장 중,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주장을 한 사람을

의 목표, “핵심적·필수적 한자 어휘를 익혀 원활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으로써 공감 능력과 공동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언어생활과 한자’는 일상 생활 용어를 중심으로 다루고 언어로서의 ‘한문’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경학 전통의 생활화가 적극 구현될 수 있는 체제, 구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용도서 편찬 방향’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 도서”³⁹⁾이기 때문이다. 『한문 고전 읽기』 1종에 대해서도 검토는 했지만 이른바 동적인 시각보다 정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생활화’라는 개념이 한문교육계에 처음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향후 한문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의 보완할 점과 함께 지속되기를 바라는바 그 목적은 “한문 기록 속에는 귀감이 되거나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기초적인 한문 독해 능력을 길러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한문 과의 필요성 및 역할과 관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될 때 경학 전통의 생활화는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인 중·고등학생들이 한문 교과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 서술”(‘언한-씨마스’, 153면)과 같은, 이른바 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39) 충청북도교육청(2023), 3면.

참고문헌

1. 단행본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7]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충청북도교육청(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충청북도교육청(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중학교 『한문』 교과서 총 11종

김용재 · 류준경 · 정규돈 · 진태훈 · 조은 · 허도운(2025), 중학교 『한문』, 와이비엠.

김우정 · 주석준 · 최중형 · 하승완 · 안병후 · 김안나 · 강예슬(2025), 중학교 『한문』, 동아출판.

김택수 · 채기수 · 주혜림 · 김지희(2025), 중학교 『한문』, 글샘교육.

송재소 · 배기표 · 김호기 · 변유경 · 김충겸 · 신미경 · 조해진(2025), 중학교 『한문』, 다락원.

송혁기 · 김은경 · 송태명 · 송호빈 · 홍경원 · 김원용(2025), 중학교 『한문』, 미래엔.

안대회 · 장현곤 · 서문기 · 김준우 · 고진성 · 홍진화 · 남윤혜(2025), 중학교 『한문』, 천재교과서.

윤미정 · 김혜진 · 김주화 · 우희진 · 이승용(2025), 중학교 『한문』, 대학서림.

이동재 · 김병철 · 공민정 · 손형태 · 정효영(2025), 중학교 『한문』, 비상교육.

조영호 · 김은진 · 김태정 · 임재범(2025), 중학교 『한문』, 교학사.

진재교 · 신영주 · 조수현 · 배자연 · 김득범(2025), 중학교 『한문』, 장원교육.

최상근·이지곤·원주용·임현재·김혜경·김기찬(2025), 중학교 『한문』, 박영사.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총 9종

김용재·류준경·이덕호·최대운·오주학·김주영(2025), 고등학교 『한문』, 와이비엠.

김우정·주석준·최중형·하승완·안병후·김안나·강예슬(2025), 고등학교 『한문』, 동아출판.

송재소·배기표·김호기·변유경·김충겸·신미경·조해진(2025), 고등학교 『한문』, 다락원.

송혁기·김은경·송태명·송호빈·홍경원·김원용(2025), 고등학교 『한문』, 미래엔.

안대회·장현곤·서문기·김준우·조남신·고진성·김연수·홍진화·남윤희(2025), 고등학교 『한문』, 천재교과서.

이운찬·권경아·고승희·김준영(2025),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이동재·이성형·심의식·박기성·정문희(2025), 고등학교 『한문』, 비상교육.

진재교·신영주·최돈옥·김세원(2025), 고등학교 『한문』, 장원교육.

최상근·이지곤·원주용·임현재·김혜경·김기찬(2025), 고등학교 『한문』, 박영사.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교과서 총 7종

김성중·박동욱·김동규·이정순·김진봉(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씨마스.

김우정·주석준·최중형·하승완·안병후·김안나·강예슬(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동아출판.

송재소·배기표·김호기·변유경·김충겸·신미경·조해진(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다락원.

안대회·장현곤·서문기·김준우·조남신·고진성·김연수·홍진화·남윤희(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천재교과서

이동재·김병철·이성형·심의식·박기성·정문희(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비상교육.

조영호·김은진·김태정·임재범(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교학사.
진재교·신영주·최돈옥·김세원(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장원교육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 1종

안대회·장현곤·서문기·김준우·조남신·고진성·김연수·홍진화·남윤희
(2025),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 천재교과서

고려대학교 편정(1995), 『新明心寶鑑』, 고려대학교.
배두본(1999/2014), 『영어교재론 개관』, 한국문화사.

2. 논문

- 김대행(2001), 「문학생활화의 반성과 전망: 문학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제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김성중(2011), 「한문 교과서에서 儒經·諸子書의 제재선정 수준과 범위」, 『漢文教育研究』 3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수경(2024), 「한문 고전 읽기」 중 유가 경전·제자서 활용에 대한 이론과 적용 모색」, 『한문교육논집』 6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명기(2020), 「문학생활화에 기반한 <강도몽유록>교재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 함영대(2011), 「경전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문교육연구』 제3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함영대(2018), 「중등학교에서 경전·제자서 학습과 인문고전교육」, 『한문교육연구』, 제5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A Study of the Patterns of Everyday Applic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Tradition in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Textbooks

Kim, Sung-joong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recognized, applied, and utilized in students' everyday lives through Classical Chinese textbooks compiled under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spective of "everyday application." The everyday applica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can be understood as applying and utilizing the reception and produc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with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The aspects of the everyday applica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mplemented in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textbooks can be examined from three perspectives: connection with one's own lif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extension into society. Regarding connection with one's own life, this study identified activities that connect the self-reflection of the lives of ancient sages with learners' own lives, transfer such reflections into everyday practice, and promote learners' self-development. Regarding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it examined activities in which learners internalize the values and virtues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apply them to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practice attitudes of respect and consideration toward others. Regarding extension into society, it confirmed that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connected with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and utilized as a

* Associate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 E-mail: zhung1227@hanmail.net

means of analyzing and critically reflecting on modern society.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textbooks move beyond a knowledge-based understanding of passages from the classics and passive reading, instead focusing on how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can establish meaningful connections with learners' real lives and be expanded into them. This direction is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rious learning activities. The everyday applica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necessity and role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which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lives and wisdom of people of the past through Classical Chinese texts and cultivate the character required for future society.

Key Words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Classical Chinese Textbooks, Confucian Classical Studies,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Everyday Application

논문접수일: 2026.05.24. 심사완료일: 2026.06.11. 게재확정일: 2026.06.24.
--